

작품 내용

제 목	서랍을 나간 목소리
내 용	밤새 도려낸 불면의 문장들이 내가 모르는 도심의 전광판에서 낮선 이의 명함으로 번쩍이고 있었다. 허락받지 않은 발자국들이 내 비밀의 정원을 짓밟고 간 아침, 나는 내 서랍 속에서 가장 눈부시던 영혼의 한 조각을 영영 분실했다.